피의 반격: 에드워드 셸던의 『검둥이』에 나타난 혼혈 문제와 '백인 검둥이' 논쟁*

박 정 만

차 례

Ⅰ. 머리말
Ⅱ. 핵심과 주변: 백인 내부의 층위와 분화
Ⅲ. 백색의 변주: 필립의 인종 정체성
Ⅳ. 인종과 인간: 보편적 인간애와 역사인식
Ⅴ. 맺음말: 피의 반격

Ⅰ. 머리말

에드워드 셸던(Edward Sheldon, 1886-1946)의 『검둥이』(*The Nigger*, 1909)는 20세기 초반 미국 남부 사회의 흑백 문제를 극화한다. 이 극은 플랜테이션 농장주이자 지역의 명망 높은 백인 정치인으로 살아오던 한 남성이 자신의 흑백혼혈 정체성이 밝혀짐으로써 '검둥이'로 전락하게 된 후에 겪게 되는 좌절, 고뇌, 결단을 다룬다. 이 극이 흑백 문제를 다룬 다수의 동시대 극들과 차별되며 "중요한 예외적 작품"(important exception)으로 여겨지는(Wainscott 280) 이유는, 다른 극들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흑백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이 극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있다. 20세기 초반까지 양산된 미국드라마에 등장하는 흑인 캐릭터들은 남북전쟁 이후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인과 같은 비중 없는 역할을 부여받고, 심지어 종종 어리석고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전쟁 이전의 흑인 민스트렐시(black minstrelsy)의 핵심적 특징인 흑인의 희화화 전통과 또한 이러한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흑인의 모습을 기대하는 백인 관객 주체와 시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 셸던의 『검둥이』는 흑인 노예제도 폐지 이후의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순수한 백인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유민으로서 의당 받아야 할 인간적 대우는 물론 기존에 누려온 지위와 기득권을 송두리째 박탈당해야 하는 '검둥이' 주인공의 현실을 진중하게 그려낸다. 이런 점에서 이 극은 "인종차별의 해악을 폭로하려는 초기의 용감한 시도"(Wilson 330)이자 "노예제도 폐지 이후 흑인의 고통을 공감어린 시선으로 묘사하려는 최초의 진지한 시도"(Wainscott 280)로 여겨지며, "남부 흑인문제를 다룬 극 중 1910년대 최고작"(Lovett 4)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극이 가치를 발하는 원인은 작가의 문학적 재능이나 작품의 문학적 탁월함에서보다는, 당대의 "민감한 사안을 선택"(selection of serious topics)하고, "중요 문제를 대담하게 다루며"(the courage to deal with a large theme), 주변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결연하게 문제에 접근하는"(determination to approach to them unshrinkingly) 셸던의 작가적 태도에서 발견된다(Quinn 88).[1] 결과적으로 이 극은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수반하는데, 작가 셸던을 일컬어 '진보의 시대'(the Progressive era, 1980s-1920s)로 알려진 "당대의 대변자로 가장 적합한 극작가"라 칭한 러프(Loren K. Ruff)의 표현은(164), 한 세대 전 극작가 제임스 헌(James A. Herne, 1839-1901)이 주창한 '진실을 위한 예술'(Arts for Truth's Sake)[2] 전통을 잇는 진지한 문학으로서 셸던의 극이 동시대 극들과

1) 일례로, 웨인스코트(Ronald Wainscott)는 극중 주인공이 자신의 흑백혼혈 정체성으로 인해 사랑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하나 여주인공의 진심어린 이해를 통해 극적으로 사랑을 지켜낸다는 결말 구조에서 상투성과 억지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멜로드라마적 한계를 지적한다(283). 넬슨(John Herbert Nelson) 역시 인물성격화와 극 구성력 등에서 기존 멜로드라마 전통과 크게 차별되지 않음은 인정하지만, 혼혈 캐릭터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이 극을 기존 극작 전통에서 진일보한 작품으로 평가한다(132). 이 극의 초연 무렵 공연평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1910년 11월 26일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매쓔 교수(Prof. Brander Matthew)의 말을 인용해 이 극의 강점이 "문학적 특질"(literary quality)보다는 "극작가의 사상"(dramatist's idea)에 있다고 말했다.

2) 제임스 헌은 1897년 2월호 『아레나』(*The Arena*) 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오락물과 볼거리 제공 위주의 당대 멜로드라마 관행에 반감을 표하면서, 드라마의 숭고한 목

차별되는 이유를 통찰력 있게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검둥이』를 단순한 멜로드라마가 아닌 "사실주의 사회 문제극"(realistic social problem play) 혹은 "사상극"(thesis play)으로 분류하는 윌슨(Garff B. Wilson)의 시도는 타당하다(328, 330).

흑백혼혈 남성 주인공의 등장, 흑백 간의 로맨스, 그로 인한 백인 사회의 혈통적 순수성 붕괴에 대한 예후 제시로 인해, 이 극은 1909년 12월 4일 뉴욕의 뉴씨어터(New Theatre)에서의 초연 무렵부터 백인 관객들의 우려 석인 이목을 끌며 논란의 대상이었다(Perry 324). 남북전쟁에 이은 노예해방 선언이 미국 시민으로서 흑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난 1900년대 초반의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적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백인 중심적 인종우월주의와 흑백차별은 심지어 남북전쟁 때보다 더 악화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약자인 흑인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한편, 순수 혈통에 대한 백인들의 병적 집착은 흑인에 대한 강박적 경계와 공포심으로 표출되었고, 흑인에 의해 자신들의 혈통적 순수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집단 위기의식으로 수렴되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사회가 백인 중심적 인종주의와 흑백차별의 세계라고 한다면, 흑과 백의 엄정한 차별은 상기한 이분법적 질서의 유지를 위한 근간이자 제일의 현실 원칙이어야 했다. 시대적 상황이 이러했던 바, 『검둥이』는 제목에서부터 당대 백인 주류사회의 정서와 기대에 관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흑인 비하적인 제목 문구에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객석에 앉아 우스꽝스런 흑인의 모습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은 상기한 백인의 정서와 기대감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흑인 민스트렐시 전통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흑인 캐릭터가 주연을 맡는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용인되지 않던 당시 미국 연극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순수한 백인 혈통을 위협하는 '검둥이' 캐릭터가 주연으로 무대에 오르고 심지어 백인 여성과 로맨스를 나누는 것은 분명 파격이었다(Austin 241 재인용). 한마디로 이 작품은 백인 주류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작이었던 것이다.[3)]

적이 사회의 불의를 관객에게 일깨워주고 궁극적으로 이를 타파하는 데 있음을 골자로 하는 '진실을 위한 예술' 철학 및 사실주의 극작론을 천명했다(361-70). 헌의 극작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정만의 2009년도 논문을 참고할 것.

극중 주인공 필립 모로우(Philip Morrow)는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자로, 자신도 몰랐던 피의 진실—믿었던 백인 혈통의 순수성이 흑인의 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백인의 순수함을 주장할 수도, 그 사회에 속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흑백 간의 엄정한 이분법적 구분이라는 현실 원리에 따라 그의 '혼혈' 정체성은 흑과 백 어느 사회에도 속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필립의 '변주하는'(variating) 인종 정체성은 백인 중심적 인종주의의 결과로 나뉜 흑과 백이라는 이분된 카테고리 안으로 온전하게 편입될 수 없는 '중간에 끼인'(in-between) 인생들의 '모호한'(ambivalent) 사회적 위치를 피력한다. 흥미로운 것은 혈통과 사회적 위치 간 상반된 영역을 넘나드는 필립의 모호한 정체성과 그에 따른 갈등과 진지한 논의들이 극을 지배하면서 작품의 현실적·극적 배경인 엄정한 인종주의와 흑백차별 세계의 우위를 무너뜨리며, 흑과 백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 인종정체성의 스펙트럼을 형성함으로써 이 극을 이분법적 흑백논리 텍스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점이다. 극중 인물 필립의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정작 그 자신이 백인의 혈통과 우월성을 박탈당했을 때 그의 인간적 가치를 부인하는 부메랑으로 그에게 되돌아온다. 극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극을 지배하는 '백인 검둥이'(white nigger)로 대표되는 혈통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진지한 논의들은 제목 '검둥이'에서 백인 주류 대중이 쉽게 기대하게 되는 혈통의 순수함에 대한 우월감과 그들이 흑백차별이 엄정한 이분법적

3) 이 극이 초연된 뉴씨어터는 1909년 11월 6일 개관했다. 개관 당시 뉴욕 관객, 특히 백인 관객들은 이 극장의 설립을 보면서 미국 드라마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great expectation)을 표했다(Hewitt 302). 개관 한 달 후에 무대에 오른『검둥이』의 실상은 상기한 기대감을 상쇄하기에 충분할 만큼 백인 관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특히 흑백혼혈과 백인 여성의 로맨스라는 주제는 노예폐지론을 옹호해온 당대 뉴욕의 백인 관객들에게조차 정서적으로 환영받지 못했다(Austin 241). 흑백 간의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발상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주제였으며(Hischak 208, Monfried 14), 여전히 백인 사회에서 철저하게 기피되어야 할 금기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 극은 흑인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극의 제목을 흑인비하 표현으로 이해한 흑인 관객들이 항의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셸던은 서둘러 해명의 글을 통해 극의 제목 '검둥이'가 "흑인이 아니라 백인과 관련된"(reflects on the whites, not on the blacks) 것이라 밝혔다(Meserve 357). 셸던의 해명 내용은 이 극의 문제의식이 인종차별의 근원인 백인우월주의와 이러한 편향적 시각을 양산한 백인 사회를 겨냥하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세계에 살고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치에 대해 '피의 반격'을 가한다.

이 논문은 셀던의 『검둥이』에서 흑백혼혈 혹은 '백인 검둥이' 주인공 필립의 몸이 시현하는 인종 정체성의 변주 과정과 그로 인한 자기인식의 발전 양상을 추이한다. 구체적으로 백인 사회의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백인들이 고안해낸 흑백차별이라는 이분법적 '피의 논리'가 오히려 순백의 혈통과 순백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상화된 믿음을 붕괴시키고, 결과적으로 극중 백인 군중들은 물론 관객과 독자를 혼혈과 혼종의 나라 미국이라는 현실 인식으로 이끄는 '피의 반격'을 감행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핵심과 주변: 백인 내부의 층위와 분화

작품 전체를 통해 가장 두드러진 대결구도는 두 백인 남자 필립 모로우와 클리프톤 노예스(Clifton Noyes) 사이에서 발견된다. 백인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내의 삶을 가르는 상반된 면모들은 흑백이라는 다른 인종 간에서 뿐만 아니라 백인 사회 내부에서조차 계층적 서열 혹은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필립은 남부 명문 가문 출신에 대학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으로, 남부의 전통적 경제기반인 플랜테이션 농장의 소유주이자 지역의 치안관(sheriff)이기도 하다. 돈보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의 성품은 문화적·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그의 환경을 반영한다. 반면, 노예스는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으로, 1900년대 초반 새로운 사업으로 부상하던 주류 제조업(distillery) 종사자이다. 그에게 삶의 목적은 오직 돈인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야회복("he is in evening dress, with diamond studs")과 목깃을 불편해 하는 그("his collar secretly annoys him") 의 모습에서 졸부의 허세와 함께 재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품격의 결핍이 노출된다(362).

필립과 노예스의 상반된 면모는 남부 여성 조지아나(Georgiana Byrd)를 두고 벌이는 두 사내의 사랑 대결에서 표면화된다. 필립을 사랑하는 조지아나가 못 마땅한 노예스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청혼의 뜻을 밝히는 한편, 자신이 배우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따져 묻는다. 이에 대해 조지아나가 드는 첫

번째 이유는 노예스의 직업이다.

> 조지아나: 글쎄, 우선은 술장사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내 남편이 된다는 게 탐탁지 않네요. ...
> 노예스: 그 말은,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신사가 아니라는 거군. (다시 짧은 침묵) 뭐, 그렇긴 해. ... 그러니까 당신은 증류업자 노예스가 맘에 안 든다, 그런 거네? 당신의 귀족적 품위에 걸맞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라서?

> GEORGIE. Well, fo' one thing, I shouldn't care to feel that my husband made his money in whiskey. ...
> NOYES. I s'pose you mean I'm not yo' idea of a gen'leman. (There is another slight pause.) Well, I'm not. ... So you don' like the Noyes Distillery Wuhks, eh? Not high-toned enough to suit yo' aristocratic raisin? (365)

노예스는 술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야 했고 돈과 은행계좌에 연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조지아나에게 하소연하듯 토로한다. 동시에 그는 무일푼으로 자수성가한 자신의 삶과 가업을 물려받아 농장을 경영하는 필립의 삶을 비교하고, 후자를 무위도식 행위로 폄하하면서 은연중 필립에 대한 적개심과 '신분적' 열등감을 표출한다.

> 노예스: 이렇게 난 술 제조업에 내 인생을 바쳐왔어. ... 난 치열하게 싸우며 내 길을 걸어와야 했지. 난 아침에는 말을 타고 어슬렁거리고 오후에는 수표에 서명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는 수천 에이커의 면화 농장에는 얼씬도 안 했지, 여기 필립처럼 말이야. 만약 필이 무일푼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이 위치에 올 수 있었을까? 난 아니라고 봐!

> NOYES. So I've spent my life in these heah distilleries. ...

> I've had to fight my way. I didn't step into a thousan'-acre cotton plantation—like Phil hear—with nuthin' t' do but ride a hoss 'round all mawnin' an' sign checks all aftahnoon. If Phil had sta'ted in with nuthin', d' you think he'd be where he is now? I reckon not! (366)

자수성가한 노예스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현대인("Yo' the mode'n man, Mr. Noyes. You have the new wo'ld yo' side!",366)이라 격려하던 조지아나도, 필립을 폄하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색하며 필립을 변호한다.

> 조지아나: [무일푼이었다 해도] 물론 지금의 그가 되었을 거에요! 그는 지난 15년 동안 수입을 두 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이 농장을 주의 명물로 만들었다구요! 그 뿐 인가요? 그가 스물다섯 되던 해에 경마와 무위도식을 끊고 대학에 진학한 거 알죠? 교육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오직 그 이유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는 이 지역 치안관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남부가 배출한 최고의 시민으로 그를 찬사하고 존경하지 않나요?
>
> GEORGIE. Of co'se he would! He's doubled his income in fifteen yeahs, he's made this the showplace of the State! An' he's got all the rest, too! Didn't he go to college when he was twenty-five and give up his racing and idleness, just because he came to realize the value of an' education? Isn't he Sheriff of this country? Isn't he looked up to and admired by ev'ry man in the State as the best the South can offer? (366)

위에서 조지아나는 은연중 필립이 노예스보다 월등한 면모들을 열거하는데, 그것은 교육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존경이다. 이러한 면모들은 조지아나가 배우자로서 필립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예스는 필립에 필적할 만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는 필립에게 있는 또 다른

면모들을 결여한 것이다. 조지아가 배우자로서 노예스의 원천적 결격 사유들을 공표한 이상, 노예스는 그녀와의 결혼이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예스는 체념하듯 조지아나의 배우자가 될 필립의 자격요건을 “전통적 남부 신사의 전형”(ol' type o' the So'th'n gen'leman)인 “완벽한 남자”(the pu'fect man)라는 말로 명료하게 정리한다(366).

노예스의 필립에 대한 정의는 완벽한 배우자 상 이상의 의미를 함의한다. 전도유망한 정치인, 플랜테이션 농장 소유주, 전통적 남부 신사 등 필립의 면모는 남부 백인 사회의 이상적인 모델인 것이다. 반대로 노예스는 남부 백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필립과 비교할 때 가장 부각되는 노예스의 결점은 돈보다 명예—교육, 사회적 지위와 명예, 존경할 만한 품격을 포함하는—를 숭상하는 인품의 부재다. 필립이 남부 백인 사회의 이상적 모델로서 ‘핵심 백인’(core white)에 속하며 그들의 정서를 대변한다면, 노예스는 혈통적으로는 백인이지만 정서적 기준에 미달하여 핵심 백인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주변부 백인’(marginal white)으로 묘사된다.

한 여인을 놓고 벌이는 필립과 노예스의 대결 구도는 기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두 가문의 오랜 갈등 양상이었음이 노예스의 폭로로 인해 밝혀진다. 필립의 조부와 노예스의 조부는 젊은 날 한 여인을 두고 사랑 대결을 벌인 연적 관계였고, 결국 필립의 조부가 여인의 사랑을 쟁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필립의 조부가 사랑한 여인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이다.

> 노예스: 우리 할아버지와 필립의 할아버지는 처남, 매부지간이었어. 이야기는 18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 한 여인에게 빠진 두 사내의 이야기라, 정말 진부하긴 해.
> 조지아나: (순진하게) 낭만적이네요! 필립의 할머니 말이군요?
> 노예스: (잠시 후) 아니, 어떤 흑인 여자.
> 조지아나: (작은 음성으로 외면하며) 아, 잘못 짚었네요.
> 노예스: (목청을 가다듬으며) 결국 필립의 할아버지가 이겼지.

> NOYES. My gran'fathah and' Phil's— they were brothah's-in-law— they began it in the fo'ties. ... It's the ol'

thing— both losin' theah heads ovah the same woman.

GEORGIE. (innocently) How romantic! Phil's gran'mothah?

NOYES. (after a pause) No— niggah woman.

GEORGIE. (in a low voice, turning away) Oh— I didn't— realize—

NOYES. (clearing his throat) Phil's gran'fathah— he won out. (363)

노예스의 폭로는 극 전개상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필립 가문의 과거사, 특히 필립의 조부가 사랑했던 여성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은 노예스 자신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는 문제의 흑인 여성이 필립의 조모라고 확신하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핵심 백인의 이상적 모델이었던 필립이 실은 흑백혼혈이었음이 폭로될 것이다. 나아가, 필립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주변부 백인' 노예스가 급기야 흑백혼혈 정체성을 떠안게 된 필립보다 인종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결과가 된다. 술을 판매하며 전국을 떠돌던 그가 돌연 옛 고향 친구인 필립의 농장을 찾아온 이유 역시 언급한 확신을 증명할 문서를 찾기 위함이다. 이 문서가 노예스에게 중요한 이유가 필립에 대한 그의 인종적 우위를 증명해주는 데에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문서가 필립 가문의 재산 상속에 있어 노예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기실, 필립의 조부와 노예스의 조부는 인척지간(brothers-in-law)이었으며(363), 결과적으로 필립과 노예스 역시 먼 인척이 된다. 노예스가 상기한 문서를 수중에 넣음으로써 가문 재산의 상속자로서 필립의 혈통적 부적격성을 증명하고, 다음 수순으로 자신이 필립 가문의 인척임을 내세워 재산을 상속받을 속셈을 하는 것이다. 즉, 필립 가문의 과거사, 특히 필립의 조부가 사랑했던 문제의 여인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노예스의 폭로는 주동인물 필립의 인종적·사회적 정체성의 변화와 그로 인한 운명의 향방에 대한 복선이 된다.

노예스: 나도 필립 못지않게 좋은 출신 아니겠어? 우린 혈통이 같으니 말이야. 글쎄 오늘 오후에 드디어 다락에서 나를 '혁명의 아들'4)로 만들어 줄 문서를 발견하지 않았겠어? 어떻게 생각해?

조지아나: (말을 가로막으며) 오, 그럼 그 문서를 손에 넣었겠네요? 필립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낡은 트렁크들을 뒤지는 걸 보고 필시 거기에 그 문서가 있을 줄 알았다고.
노예스: 아무렴, 손에 넣었지.

NOYES. Ain't I as well bawn as Phil? We come from the same stock. Why only this afte'noon I found the paphas up in the attic that'll make me a Son o' the Revolution! How's that?
GEORGIE. (hailing the interruption) Oh, you did get them, then? Phil said he knew they were theah, if you hunted long enough in those old trunks.
NOYES. Yes, I got 'em. (363-4)

극은 노예스가 문제의 문서를 이미 수중에 넣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물론 그는 주변인들에게 문서를 찾았다는 것 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이고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선 함구한다. 결국 노예스는 처음부터 주동인물 필립의 정체성 및 운명의 향방을 결정할 열쇠를 쥔 인물로 등장한다. 반대급부로, 핵심 백인에서 흑백혼혈로의 인종적·사회적 정체성 변화와 그로 인한 비극적 결말은 주동인물 필립이 직면하게 될 불가피한 운명으로 설정된다.

Ⅲ. 백색의 변주: 필립의 인종 정체성

극이 전개되면서 노예스가 필립을 찾아온 또 하나의 이유가 밝혀진다. 곧 있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the Democrat) 후보로 필립을 추대하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북부를 기반으로 노예제도 철폐와 공업중심의

4) 모로우 가문과 노예스 가문은 인척지간이다. 극중 필립의 할아버지가 멕시코 전쟁(Mexican War, 1842)에 참전하여 시민의 명예로운 의무를 다했던 반면, 노예스 가문은 대대로 전쟁터를 전전하며 화약, 탄환, 술을 팔며 사리를 취해왔다. '혁명의 아들'은 모로우 가문의 후계자를 의미하는 말로, 이 표현은 노예스가 모로우 가문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을 드러낸다.

경제개혁을 지지하는 공화당(the Republican)이 주도하여 국가통합 개혁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흑인 노동력을 기반으로 면화생산에 의존하는 남부인, 특히 백인 농장주들이 갖는 북부에 대한 반감은 당연한 것이었다. 극중 필립 역시 "백인우월주의 지지자"(advocate of white supremacy)로서 (Quinn 87) 흑백 분리론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남부의 백인 농장주이다. 그는 상기한 남부의 원칙과 전통이 손상 받고 있는 세태에 우려를 표한다.

> 필립: 클리프, 이건 죄악이야— 이건 남부를 망치는 거라구! 전쟁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어. 만일 우리 혈통을 지킬 생각이라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단 말일세. 백인은 백인이고 흑인은 흑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피를 섞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
> PHIL. Clif, it's a crime— it's demo'alizin' the South! Things have changed some since the wah, an' if we want t' keep our blood clean, we've got to know that white's white an' black's black— an' mixin' 'em's damnation! (368)

노예스는 남부의 원칙에 대한 필립의 신념을 명분 삼아, 그에게 주지사 선거의 민주당 대표로 나설 것을 종용한다. 노예스는 현재 주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 지명자인 상원의원 롱(Senator Long)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거 입후보에 대한 필립의 관심을 자연스레 도출해낸다. 노예스는 공화당 성향의 링컨 추종자이자 심지어 흑인 친화적인 '백인 검둥이'(white nigger)로서 소위 '북부적' 원칙을 따르는 롱 의원이 백인우월주의와 흑백분리 정서 등 남부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남부의 원칙과 전통이 위협받는 세태를 우려하던 필립은 노예스에게 동조를 표한다.

> 노예스: 잘 듣게. 디보이가 토마스 롱을 금주 운동 연단에 내세울 듯하네—
>
> 필립: (놀라며) 상원의원 롱이 주지사 선거에? 저녁식탁에 검둥이들과 합석하는 그 사내가? 그 '백인 검둥이'가 말야?

노예스: 그래 그 작자! ... 그는 더러운 공화당주의에 빠진 변절자야 ... 그는 속속들이 아브라함 링컨 골수분자임이 분명해!

필립: 팔 할은 금주 지지자, 이 할은 사회주의자, 자넨 그의 공화당주의를 비난하고, 정작 그는 자신을 민주당원이라 말한다! ... 백인 검둥이 녀석!' 도대체 어떻게 그런 작자가 주지사 후보가 된다는 거지?

NOYES. Now listen. DeVoy's goin' t' put up Thomas R. Long on a prohibition platfo'm an'—

PHIL. (amazed) Senatoh Long fo' Gove'noh? The man that has da'kies at his dinnah-table? Why, you don' mean "The White Niggah?"

NOYES. That's him! ... He's a renegade to dirty Republicanism ... Why, suh, at heart he's a regulah Abe Lincoln!

PHIL. Eighty per cent Prohibitionist, twenty per cent Socialist, you accuse him of Republicanism, an' he calls himself a Democrat! ... The White Niggah! How in Gowd's name is he goin' t; get the nomination? (369-370)

남부의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워 필립을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추대하려는 노예스의 진짜 이유는 정작 자기 이익과 직결된 것이다. 금주법(Prohibition) 지지자인 롱 의원이 주지사가 될 경우, 주류의 제조와 유통이 금지될 것이며 결국 노예스의 사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예스는 어떻게든 롱 의원의 주지사 당선을 막아야 할 입장인 것이다. 필립이 선거 입후보에 관심을 보이자, 노예스는 본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사업가적 수완을 발휘한다.

필립: (호기심에) 나를 입후보시킬 속셈이군. 아무 대가 없이 일 할 자네가 아닌데, 클리프. 여기서 자네가 얻는 게 뭔가?

노예스: (숨김없이) 솔직히 말함세, 필립. 만에 하나 롱 의원이 주지사가 되어 우리 주에 금주법을 선포하는 날에는, 나도 노예스 양조장도 모두 끝장이야. ... 하지만 자넨 금주 지지자가 아니잖나, 게다가 자네의 줄렙 주 만드는 솜씨또한 일품이지!

필립: (방어적으로) 누구나 마시고 싶은 술은 마셔야 한다는 게 내 평소 신조이긴 하네만—

노예스: 그래서 자네라면 안심이라니까!

PHIL. (Curiously.) Seems like yo' mighty keen to run me in. Yo' not the man who does somethin' fo' nuthin', Clif. What's yo' li'lle game?

NOYES. (frankly) I'll be straight with you, Phil. If by any chance Long should get in an' this State go dry— well, that would be the end o' me an' the Noyes Distillery Wuhks. ... But yo' not a prohibitionist, thank Gawd an' yo' ability to make a julep!

PHIL. (guardedly) I've always believed that ev'ry man should be able to drink what he wants—

NOYES. So we're safe with you! (370)

결국 필립은 선거에 나서 주지사에 당선된다. 이로써 남부의 원칙이라는 명분뿐만 아니라, 생업의 생사여부에 대한 노예스의 고민도 성공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필립의 주지사 관저가 위치한 도시는 흑인문제로 연일 소란스럽다.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체포된 한 흑인의 탈옥 사건으로 백인들은 마음 편할 날 없고, 탈옥수와 경찰의 쫓고 쫓기는 공방과 총성이 끊이질 않는다. 흑인 탈옥수를 쫓는 흑인 경찰들은 인종적 동지애 혹은 의리 때문에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백인을 살해한 흑인에 대한 기사가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다. 필립은 흑인 탈옥수를 잡기 위해 급기야 군대까지 투입할 계획을 세운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검둥이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I've got to weed out ev'ry niggah on the for'ce!, 394)는 필립의 강도 높은 표현

은 그의 뿌리 깊은 백인우월주의와 흑백분리론을 피력한다.

한편, 도시의 흑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립은 한시적 금주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필립과 노예스의 갈등을 촉발하는 동인이 된다. 필립의 이러한 조치는 금주령의 입법화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필립을 주지사 후보로 추대했던 노예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인 것이다. 노예스는 재차 필립의 생각을 물어보지만, 음주가 흑인들의 난폭성을 부추겨 급기야 살인이라는 폭행으로 이끈 원인이라 믿는 필립은 오히려 금주령을 영구화할 것이며 나아가 롱 의원의 금주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을 분명히 한다.

> 필립: 한시적인 게 아니네, 클리프. 금주령은 영구화될 걸세. ... 우리가 흑인들을 이 나라로 데려왔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야. 만일 우리가 그들을 어린애처럼 두고 있으려면, 우린 그들을 어린애처럼 다루어야 하네. 우리 아기들의 목구멍에 술을 퍼붓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가 말야. ... 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네. 일주일 내에 우리 주에는 술이 말라버릴 걸세.
>
> PHIL. It won't be tempo'ary, Clif. It'll be fo' good. ... We brough the niggahs ovah t' this country, Clif-- an' I reckon we're responsible fo' them while they'ah heah. If we've kept 'em like children, we've got to treat 'em like children. As' we're not in the habit, Clif, o' pourin' liquoh down the throats of our infants. ... I'm goin' t' let that Bill pass. This State'll go dry within a week. (397-8)

배신감을 느낀 노예스는 필립의 의지를 꺾을 마지막 카드로 한 통의 편지를 꺼내놓는다. 그것은 일전에 필립의 농장에서 발견했다는 문제의 문서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필립도 편지의 내용에 충격을 금치 못 한다. 이 편지는 필립의 조부를 시중들던 벨레(Belle)라는 이름의 흑인 하녀가 다른 곳으로 팔려가면서 여동생 지니(Jinny)—현재 필립의 농장의 유모로 일하는—에

게 남긴 글이다. 편지에서 벨라는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그 아이는 모른다"(he didn't know I was his mothah, 400)고 말하는데, 정황상 '그 아이'는 필립의 아버지였고, 결과적으로 벨라는 다름 아닌 필립의 조부가 사랑했다는 흑인 여인이었음이 밝혀진다. 즉, 벨라는 필립의 조모였고, 필립의 몸에는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필립은 스스로가 자신해왔던 순수한 혈통의 백인이 아니라 흑백혼혈이었던 것이다. 필립이 경멸하던 '백인 검둥이'는 정작 필립 자신의 정체성의 진실로 밝혀진다.

> 필립: (의심의 눈초리로) 클리프, 자네 지금 내 할머니가 검둥이였다고 나에게 말하는겐가, 안색 한번 변하지 않고?
> 노예스: 내 말은 자네 할머니가 검둥이였다는 것은 물론, 필립 자네 역시 검둥이라는 소리야! 이제야 납득이 간다는 눈치로군!
>
> PHIL. (incredulous) Are you tryin' t' tell me with a straight face, Clif, that my gran'mothah was a niggah?
> NOYES. What I'm tellin' you is not only that yo' gran'mothah was a niggah, Phil, but that yo' a niggah, too!— Now you've got it square between the eyes! (400)

주목할 것은 이 지점에서 필립을 대하는 노예스의 태도 변화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필립에게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 이는 필립과 노예스의 계층적 서열이 뒤바뀌어 있음을 반영한다. 흑백혼혈로 밝혀진 이상, 필립은 더 이상 핵심 백인이 아니다. 대신 필립은 자신이 '백인 검둥이'라 경멸했던 롱 의원과 같은 처지가 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롱 의원과 필립이 공유하는 '백인 검둥이' 정체성에도 차이가 발견된다. 롱 의원은 인종적으로는 백인이지만 단지 흑인 친화적 성향으로 인해 '검둥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것이지만, 필립의 경우는 인종적으로 '검둥이'인 것이다. 성향은 바꿀 수가 있지만 혈통은 바꿀 수 없다. 아울러 남부적 원칙의 핵심인 백인우월주의와 흑백분리 정서를 감안할 때, 롱 의원의 '백인 검둥이' 정체성은 '주변부 백인'이라는 층위에 놓이지만, 필립의 '백인 검둥이' 정체성은 백인 사회 내의 어느 층위에도 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검둥이’라는 수식어가 롱 의원에게는 단지 별명일 뿐이지만, 필립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론적 진실”인 것이다(“it won't be a nickname—it'll be the truth”, 411). 앞서 언급했듯이, 노예스 역시 성격은 다르지만 롱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변부’ 백인의 층위에 속하는 인물이다. 백인의 주변부에도 끼지 못하는 ‘검둥이’ 필립보다 인종적·사회적으로 상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노예스는, 비로소 필립 앞에 당당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필립은 흑인이며, 백인 사회에서 그는 노예스의 말대로 무명의 무가치한 존재다. 필립이 가문의 이름을 박탈당할 위기에 직면한 반면, 인척 중 유일한 생존자인 노예스가 모로우 가문의 새로운 상속자로 부상한다. 남부 명문 가문의 명예, 사회적 지위, 농장 등을 소유함으로써 노예스는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남부 백인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게 했던 결격 사유들을 충족하게 될 것이며, 이는 그가 주변부 백인에서 ‘잠재적’ 핵심 백인으로 층위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 노예스: (부드럽게) 자넨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 같군. 엄밀히 말해서, 자넨 이제 아무 것도 아니야. 자네 재산, 모로우 농장, 자네가 상속받은 모든 것이 이제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지. 이젠 자넨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 하는 신세라니까. 알아듣겠나, 친구? ... 난 남부의 존경을 몸에 받게 될 거야! 조지아나 양의 배우자가 될 몸이라구!
>
> NOYES. (gently) I wondah if you realize what all this means. It means that you ain't nobody, strictly speakin'. Yo' prope'ty, "Morrow's Rest," eve'ythin' you inherited, belong by rights to me. Why, you ain't even got yo' name. Can you grasp it, ol' man? ... I reckon I'd be looked up to by the South! I'd be the man t' marry Miss Geo'gie! (406-7)

신분적 우위를 점유한 가운데 노예스는 망연자실해 있는 필립에게 협상을 제안한다. 필립이 금주법안을 거부하는 대가로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필립의 과거와 혈통의 진실을 비밀로 함구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립은 애초의

생각을 고수한다. 흑인들을 난폭한 기질로 몰았고 종국엔 그들에게 폭도라는 오명을 안겨준 술의 제조와 유통을 금하겠다는 필립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더욱이 "나 자신이 흑인이다"라는 필립의 인식은 상기한 오명으로부터 흑인 형제들을 구해내야 하는 보다 절실한 이유("If I'm a niggah myself, that's all the mo' reason I should help the othah niggahs"!, 407)인 것이다. 결국 필립은 자신의 인종 정체성이 폭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예스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금주법을 통과시킬 결심을 굳힌다.

Ⅳ. 인종과 인간: 보편적 인간애와 역사인식

필립은 금주법 통과를 마무리 짓기 위해 롱 의원을 만난다. 그는 금주법의 최초 입안자이자 필립 자신이 '백인 검둥이'라 폄하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날 주변부 백인으로서 핵심 백인인 필립보다 낮은 계층적 서열에 속해 있었던 롱 의원은 이제 주변부 백인조차 될 수 없는 '검둥이' 필립보다 높은 층위에 위치한다. 롱 의원과 대면하여 필립은 금주법이 흑인들을 돕는 길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흑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일례로 그는 흑인들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스스로 이용하지 못 하는 무능력자로 평가하면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해도 그들의 인격적 발전과 성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진단한다. 필립이 보기에 흑인들은 영원히 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무지하고 게으르며 열등한 인종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필립은 흑인들에 대해 백인의 "우월적인 자세"(condescending posture)를 견지한다(Wainscott 283). 아이러니는 필립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아이러니는 필립이 흑인들에게 동류의식과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수긍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필립: 의원님은 흑인들이 투표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만, 난 그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롱: 흑인 지성인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자기 존경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 또한 의미하지요.

필립: 지성인이라뇨! 흑인들은 지성인이 아닙니다! ...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흑인은 아프리카의 야만인 ... 그의 몸에는 원숭이의 피가 흐르지요. 흑인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천년이 걸려도 절대로!

PHIL. I rechon you want t' see the nigghas votin'— no, I cain't stan' fo' that!

LONG. If ev'ry intelligent niggah had the vote, that means he'd have a right power'ful lot o' self-respect, too.

PHIL. Intelligent! But they'ah not! ... the niggah's not a man, he's an animal— he's an African savage ... it's a monkey blood he's got in him, an' you cain't evah change it— no, not in a thousan' yeahs! (417)

그러나 롱 의원과의 긴 대화는 흑인에 대한 필립의 선입견을 바꾸어 놓는다. 롱 의원은 "흑인들은 저마나 인격체"(Ev'ry niggah's a man, 417)이며 백인이나 흑인 모두가 똑같은 인간("We're all men an' we're all doin' the same thing", 417-8)이라 강변한다. 이어 그는 인종적 구분과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적 인간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피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다음 세대의 종복(servant)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들이다. 다가올 세대들은 우리가 힘들게 고민하여 일구어낸 것을 누릴 것이고, 그들도 다음 세대들은 위해 힘들게 고민하고 일할 것이다. 이것이 무한히 지속될 세상의 순리요, "장구한 역사의 진리"(ol'-fashioned truth, 418)라는 것이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가 떠안은 과업을 감안할 때, 인종을 가르고 따지는 일은 하찮고 의미없는 일인 것이다. 롱 의원과의 진지한 대화 끝에 필립은 비로소 흑인을 인격체로 바라보게 된다(Wainscott 282). 필립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자신의 인

종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태도의 변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립이 금주법을 통과시키려는 애초 이유가 막연히 타자로서 흑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필립이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지점에 이르러 금주법 통과는 흑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된 보다 절실한 문제가 된다.

> 필립: 롱 의원이 내게 길을 열어주었네 ... 그것은 내게 열린 유일한 길이지 ... 난 흑인들을 위해 일해야 하네 ... 나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를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
> PHIL. Senatoh Long showed me the way ... It's the only one that's open t' me ... I've got to wuhk fo' the niggahs ... b'cause I'm a niggah myself, an' b'cause they need me awful bad! (429)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받아들인 이상, 필립은 자신의 정체성이 백인 사회에 폭로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래서 그는 노예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보는 앞에서 금주법 서류에 서명을 한다. 이 지점에 이르러 '검둥이' 필립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고 한결 여유로운 태도로 '잠재적' 핵심 백인 노예스를 대한다. 순간, 필립의 품격은 예전 남부 백인 사회의 모델이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필립이라는 한 인간의 인격 자체로 화한다. 인간 본연의 가치가 인종차별과 위계질서 등 후천적이고 인공적인 가치들을 앞지르는 순간이다. 이처럼 필립은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한 인격체로 거듭난다.

> 노예스: 이 길로 곧장 <큐란트> 신문사로 달려가 자네 할머니의 편지를 석간 일면에 게재하겠네. ... 그리고 내일 아침 사설을 실어 사람들에게 실토할거야, 그들의 주지사가 금주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를 말이야. 백인이었을 때 그는 백인을 위한 주지사였으나, 이제 흑인이 된 이상 그는 백인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 무엇이 자네로 하여금 금주법안을 통과시키게 하는지 자넨 알고 있나? 바로 인종적 감정이지, 이 빌어먹을 검둥이 놈아!

(그동안 필립은 책상에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신속하게 적고 있다. 이제 그가 일어나 자신이 쓴 것을 가리킨다.)

필립: 금주법은 이제 통과되었네.

NOYES. I'll go straight from this heah place t' the Courant Buildin' an' have 'em publish yo' niggah gran'mothah's letter on the front page o' theah evenin' edition. ... An' I'll have an editorial to'-morrow tellin' the people o' this State jus' why theah Gove'noh wants 'em t' go dry. When he was a white man, he was all fo' the whites— now that he's black, he's down on 'em like hell! D'you know what's makin' you pass this Bill? It's race feelin'— ye dam' niggah ye!

(Phil, during this, has seated himself quietly at this desk and written something quickly, Now he rises and points to it.)

PHIL. That Bill's a law now. (423)

한편, 자신을 다른 흑인 동료들과 동일시함으로써 필립의 흑인 이해는 보편적 인간애로 확장되는 양상을 띤다. 흑인들을 향한 그의 보편적 인간애는 극의 종결부에 그가 표출하는 역사인식을 통해 잘 드러난다.

필립: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행한 것이 전부가 아냐— 지난 삼백년간 백인이 흑인에게 자행해 온 일들! 이제 누군가 빚을 갚아야 할 때인 듯 해 ... 항상 햇빛이 쨍쨍하다면, 과연 우리가 좋은 날씨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이나 할까?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 ... 내 할아버지의 그릇된 행동 하나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 고통이 쓸모 있게 사용된 연후에야 ... 비로소 우린 이 모든 경험의 열매를 얻게 될 거야. 그때야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겠지.

> PHIL. What my gran'fathah did t' my gan'mothah isn't all—it's what ev'ry white man has done t' ev'ry niggah fo' the last three hundred yeahs! An' it's time someone had t' pay up ... D' you think we'd be 'especially grateful fo' good weathah if the sun kep' shinin' all the time? I have my doubts! ... My gran'fathah did somethin' wrong, an' its resultin' in mighty seveah pain fo' ev'ry one conceived. But aftah this pain's been used ... why, we'll get the fruits o' the whole experience, an' I reckon they'll make up fo' ev'rythin'! (429-30)

이제 필립은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관용과 용서의 깨달음을 통찰한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백인들이 흑인에게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 한다. 고통스런 희생이겠지만, 모든 흑인들의 고통을 보상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쓸모'(use) 있는 희생이다. 여기서 필립은 흑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제한된 인물이라기보다 보편적 인간가치를 대표하는 구세주적 인물로 보인다. '궂은 날씨에 햇빛의 소중함을 안다'는 격언적 문구가 함의하듯, 인간은 아픔을 통해 기쁨의 의미를 터득하고, 과거 경험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일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종이 아닌 인간으로서 필립이 통찰하는 보편적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다분히 앞서 롱의원이 강변한 세상의 순리와 역사의 진리에 대한 인식—그 안에서 인종의 분류가 무의미해지는—을 반추한다.

V. 맺음말: 피의 반격

극의 결말에 필립은 주지사 관저 외곽에 운집한 백인 군중들 앞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가 문밖으로 나서자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이 그를 비추고, 이와 동시에 열광적인 환호성과 군악대의 <바로 당신의 조국>(My Country 'Tis of Thee) 연주가 그를 환영해 맞는다. 그는 한 발짝 대중 가까이 다가서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좌중을 바라본다. 군중의 박수와 환호성 속에서 군악대가

성조가 연주를 시작할 무렵, 필립이 입술을 떼는 가운데 극은 막을 내린다. 필립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것일까?

극의 마지막 활인화(tableau)는 미국 사회에 대한 축도로 보인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군악대의 연주는 다분히 미국이라는 국가적 상징성을 띤다. 이 미국적 공간을 메우는 군중들은 모두 백인들이다. 그들 사이에 겉으로 드러난 흑색은 찾아볼 수 없지만, 백인들이 개념 규정한 '흑인'이 그들 사이에 분명 존재하고 있음은 아이러니다. 이들의 환호와 열광의 대상이 실은 그들이 말하는 '검둥이'인 것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백인 군중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순수한 백인의 나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직시해야 할 미국의 진실은 다른 인종과 혈통이 만나고, 교차하고, 섞여서 만들어진 '이종적'(heterogeneous) 사회라는 것이다. 필립은 군중들이 직시해야 할 현실을 몸소 시현한다. 필립의 몸은 미국 사회의 인종적·사회적 서열과 층위에 대한 축도 자체다. 그는 남부적 가치를 신봉하는 핵심 백인이었고, 주변부 백인이었으며, 검둥이기도 하다. 그의 몸은 백인우월주의와 흑백분리라는 남부적 가치가 만들어 낸 계층적 서열의 모든 층위에 걸친 몸이고, 흑백의 양 극단 사이에서 무한히 분파하는 스펙트럼이며, 흑백의 경계를 농락하듯 '변주하는' 몸이다.

한편, 극에서 다루는 흑인문제가 190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서 비단 남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가적 당면 과제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1913년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기관지 『크라이시스』(*The Crisis*) 1월호에 실린 「영구한 숙제」("The Eternal Problem")라는 제목의 사설은 흑인문제가 남부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지혜를 동원해야 할 국가적 문제라고 역설했다(126). 『검둥이』 초연 후 4년이 경과한 이때까지도 흑인문제는 미국 전체의 문제였고 해결이 쉽지 않을 영구한 국가적 숙제였던 것이다. 하물며 『검둥이』가 초연된 1909년경 흑인문제는 백인들에게 더욱 다급하고 문제였고, 흑백분리와 백인우월주의는 그만큼 더 절실한 백인 사회의 정서였다. 흑백 문제와 함께 극에서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흑백혼혈 문제는 '에스닉 혼성'(ethnic blending)이라는 당대 국가적 숙제의 또 다른 일면에 대한 명시이기도 하다. 플린(Joyce Flynn)이 지적하듯, 20세기 초반 미국 내 어느 에스닉 집단도 일상과 무대에서 육체적 접촉을 포함한 "상호 변

화"(mutual transformation)라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431). 결과적으로 당대 미국 사회는 "어울림이라는 지속적 과정"(continuing process of becoming)에 있었고, 어울림의 구체적 형태는 "다양한 충동들이 혼융되어 다원적 충동의 합일체로 귀결되는 양상"(synthesis of pluralistic and unitary impulses)으로 요약된다(Chametzky 47).

이제 필립은 막 떼기 시작한 입술 밖으로 자신의 백색 피부 밑에 흐르는 검은 피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의 진실을 공표하는 순간, 관저 앞에 모인 백인 군중은 그들이 기대하고 믿어온 혈통의 순수함에 대한 우월감과 그들이 흑백차별이 엄정한 이분법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치에 대해 '피의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순백'의 나라와 남부의 가치를 신봉하는 백인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인 것이다. 아울러, 초연 당시 뉴씨어터 극장 객석에 자리한 백인 관객들도 극중 군중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들 역시 필립의 고백을 통해 피의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퀸(Arthur Hobson Quinn)은 "야망에 찬 영혼에 대한 동정의 태도"(attitude of sympathy with the aspiring soul)를 셸던의 극작을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통찰력 있게 지적한다(98). 극중 인물 필립은 인종 강등(racial degradation)의 고통스런 체험을 통해 인종에 대한 관용의 미덕을 얻고, 흑인 형제들의 인권과 미래를 고민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긍정하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한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해 투쟁하는 필립이야말로 '야망에 찬 영혼'이다. 셸던은 투쟁하는 필립의 야망 찬 포부에 묵묵히 동정의 시선을 던지며, 변화에 대한 작가의 동조적 태도에서 필립이 가하는 피의 반격의 의미를 발견한다. 결국 필립이 남부 백인 사회에 가하는 피의 반격은 다름 아닌 작가 셸던이 미국 사회에 촉구하는 변화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인 용 문 헌

박정만.「제임스 헌의 '진실을 위한 예술론과 휴머니즘: *Margaret Fleming*에서의 사회적 혼혈 이슈와 여성 문제」.『현대영미드라마』22.2 (2009): 39-69.

Austin, Gerlyn E. "The Advent of the Negro Actor on the Legitimate Stage in America." *Journal of Negro Education* 35.3 (Summer 1966): 237-45.

Chametzky, Jules. "Some Notes on Immigration, Ethnicity, and Accumulation." *MELUS* 11.1 (1984): 45-52.

"Edward Sheldon's *The Nigger*." *The New York Times* (Nov. 26, 1910).

Flynn, Joyce. "Melting Plots: Patterns of Racial and Ethnic Amalgamation in American Drama before Eugene O'Neill." *American Quarterly* 38.3 (1986): 417-38.

Herne, James A. "Art for Truth's Sake in the Drama." *The Arena* 17 (Feb 1897): 361-70.

Hewitt, Barnard. *Theatre U.S.A. 1665 to 1957*. New York: McGraw-Hill, 1959.

Hischak, Thomas S. "Film and Theatre." *The South: the Greenwood Encyclopedia of American Regional Cultures*. Ed. Rebecca Mark and Rob Vaughan. Wesport, CT: Greenwood, 2004. 193-221.

Lovett, Robert Morss. "The Drama of Mass Action." *The English Journal* 24.1 (Jan 1935): 1-9.

Meserve, Walter J, and Mollie Ann Meserve, eds. *When Conscience Trod the Stage: American Plays of Social Awareness*. New York: Feedback Theatrebooks, 1998.

Monfried, Walter. "A Playwright's Own Life Tragedy." *The Milwaukee Journal* (April 23, 1946): 14.

Nelson, John Herbert. *The Negro Character i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AMS, 1970.

"Opinion: The Eternal Problem." *The Crisis* (Jan 1913): 126.

Perry, John. "The New Theatre." *Quarterly Journal of Speech* 58.3 (1972): 322-26.

Quinn, Arthur Hobson. *A History of the American Drama*. Vol. 2.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27.

Ruff, Loren K. *Edward Sheldon*. Boston: Twayne, 1982.

Sheldon, Edward. "The Nigger." 1909. *When Conscience Trod the Stage: American Plays of Sicial Awareness*. Ed. Walter J. Meserve and Mollie Ann Meserve. New York: Feedback Theatrebooks, 1998. 257-433.

Wainscott, Ronald. "Plays and Playerights: 1896-1915."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Theatre. Vol. II: 1870-1945*. Ed. Don B. Wilmeth and Christopher Bigsby. Cambridge: Cambridge UP, 1999. 262-88.

Wilson, Garff B. *Three Hundred Years of American Drama and Theatre*.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1973.

Abstract

Counterattack of Blood: Mixed-blood Question and 'White Nigger' Issue in Edward Sheldon's *The Nigger*

Park, Jungman

Edward Sheldon's play *The Nigger*(1909) dramatizes the color problem and the issue of mixed-blood in the South of America in the early 1900s. This play deals with the ups and downs in life of Philip Morrow, a white man of wealth and reputation, admired as the model citizen of the Southern white society. Philip happens to realize the truth of his racial identity that is a mixed blood, and suffers an experience of racial degradation. He denies his 'White Nigger' identity, but eventually accepts it as a whole identity of his own. The sense of responsibility leads Philip to the determination to work for black brethren whom he despised when he was a white. The body of mixed-blood or 'White Nigger' Philip embodies the variation of racial identity and the consequent development of his self-awareness. The blood logic, originally invented by the white as a safety fence to protect their racial purity, ironically comes flying back like a boomerang and disrupts the ideal of whiteness. Thus, the blood logic launches a counterattack to the white crowd in the play, leading them to disillusion that America is the nation of mixed-blood, ethnic blending, heterogeneity, and the synthesis of pluralistic and unitary impulses.

Key words: *The Nigger*, mixed blood, white nigger, variation, racial identity
『검둥이』, 혼혈, 백인 검둥이, 변주, 인종 정체성

논문접수일: 2012. 11. 10
심사완료일: 2012. 11. 29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박정만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주소: 449-791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길 47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이메일: jungmany@hufs.ac.kr